

목포시 설 연휴 '1000만 관광객 시대' 모의고사 치른다

손혜원 특수에 천사대교 개통 겹쳐 외지인 대거 방문 예상
시, 친절·질서·청결·나눔 4대 전략 대대적 목포사랑 운동

목포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시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공격적인 '목포사랑운동'을 펼치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들어 국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손혜원 특수에 신안 천사대교 임시 개통까지 겹치면서 설 연휴를 전후해 수십만 명의 출향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목포사랑운동의 첫 시합대가 될 것이라는 여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종식 목포시장은 "오는 4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4월 12일 서울에서 열릴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분고사라면 이번 설 명절 연휴는 이를 대비한 실질 모의고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1000만 관광객 수용 태세를 확인하는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각오로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시장은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케·문·도·맛(케이벨카+문화유산+도시재생+맛의 도시)'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하드웨어라면 '목포사랑운동'은 소프트웨어"라며 "목포사랑운동은 그동안 목포시가 펼쳤던 환경정화 활동이나 캠페인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친절·질서·청결·나눔'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개혁 수준의 강력한 시민의식 혁신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우선 지역 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자생조직을 비롯해 새마을 4개 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목포사랑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시 차원의 목포사랑

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 시민단체와 유관 기관 연석회의 개최, 목포사랑운동 실천 범 시민결의대회, 사회단체 릴레이 목포사랑운동 전개, 방송사 스폰서 광고, 목포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별·권역별 여건에 맞게 특성화 시민운동 과제를 발굴해 수시로 시민운동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목포시가 개혁수준의 목포사랑운동 카드를 꺼내든 데는 지난 2002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당시 수도권과 충청권 관광객들이 밀려왔으나 상인들의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던 전철을 되돌려놓지 않았다는 굳은 결의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5일 분청 13개 과와 관내 23개 동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사랑운동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추진 실적과 세부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매일 3개 주 금요일을 손님맞이 청결활동 중점 추진의 날로 정하



목포시가 손혜원 효과로 유망해진 근대역사문화 공간 홍보와 이곳을 찾은 외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6일 창성장 인근에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고 오는 3월부터 우수부서·기관단체 표창은 물론 친절 버스기사·친절 택시기사·친절 음식점 등 민간분야도 선정 표창해 참여

여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손혜원 효과로 유망해진 대의동 창성장 인근에 근대 역사문화 공간

홍보를 위한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스카이 워크' 유달유원지 인근에 설치

14억원 들여 30m 길이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함께 목포의 랜드마크 시설로 추진 중인 '스카이 워크 포토 존' 조성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27일 목포시는 "1000만 관광객 방문 원년을 맞아 향후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볼거리 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죽교동 유달 유원지 일원에 스카이 워크 및 포토 존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대반동 인어바위 인근 등 5개 후보지 가운데 주변 경관(30점), 스틸감 (20점), 주차장 등 기반시설 (30점), 스카이워크와 연계 활용도 (20점) 등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평가한 결과, 최종 후보지로 유달 유원지 상가 건물에서 바다 쪽으로 건립하는 안(75점)이 채택됐다. <조감도> 이 곳은 현재 유달유원지 상가 건물이

12m에 달해 수직고가 확보돼 별도의 계단 설치가 필요 없고 상가 옥상에 광장이 조성돼 있어 경관 확보와 사업비 절감 측면 등에서 이점이 많아 최적으로 꼽혔다.

스카이 워크의 길이는 총 30m로 바닥 자재는 '테크와 스틸(50%)+강화유리(50%)' 복합 형태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안전, 스틸(IT기술 첨가, 트릭아트) 등 3가지를 고려하되, 스카이워크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다 쪽으로 많이 돌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귀선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은 "인근 낙조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주차문제 해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스카이워크 최종 디자인은 오는 3월에 나올 예정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독립운동가 특별전시실이 마련된 근대역사관 2관에 관람객이 북적이고 있다.

목포시 3·1운동 100주년 독립 운동가 재조명

근대역사관에 특별전시...공모전·학술대회 등 개최

목포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의 주요 독립 운동가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실을 설치키로 했다.

27일 목포시는 목포의 항일 독립운동을 콘텐트화해 전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억원 등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근대역사관 2관)에 독립운동가 특별전시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목포는 일제 강점기 수탈항의 이미지와 함께 실제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기능을 수행한 도시로서 1919년 3·1운동 무렵 청년학생과 양동교

회 신자들에 의한 독립만세운동이 이루어진 점을 집중 홍보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도 연계 시킨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에서는 목포시 관련 독립유공자 19명, 무안군 관련 41명, 신안군 관련 10명 등 총 70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됐다.

이밖에도 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공모전을 비롯해 사생대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매일 1차례 정년회관, 근대역사관 등을 탐방하는 항일운동 발자취 투어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목포시 '섬의 날 기념' 지원 조례 제정

목포시가 오는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삼학도에서 신안군과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에 필요한 각종 내용이 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목포시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섬의 날에 목포시 지역 내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선이용자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세열굴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 다할 것"

장규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장규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관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청장은 직원들에게 "전국 여객 운송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연안 해상 교통 핵심기관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확보와 서남권 물류중심 항만으로서 목포항의 지속적인 개

발과 물류체계 개선 등 최고 수준의 해상관광, 생태자원 유지 및 관리에 노력 하겠다"고 당부했다.

장 청장은 광주인성고와 전남대학 농업경제과를 졸업하고 1995년 농림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선원노정과, 지도교섭과, 어업정책과, 어촌어항과, 수산정책과 등에서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세컨드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